

## 국어 독서 감상문

정법시간과 생윤 시간에 배웠던 플라톤의 가치관과 그의 책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사상,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이상이 담겨있다. 여러 내용 중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은 타락한 국가와 혼에 대해 다룬 부분이다. 플라톤은 명예 정체, 과두 정체, 민주 정체, 참주 정체를 나쁜 국가라고 말한다. 다른 국가라면 몰라도 어쨌든 민주 정체에 대해 나쁜 국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세한 내용을 읽기 전에는 의문이 들었다. 플라톤은 민주 국가는 자유와 말의 자유, 그리고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국가는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기개적인 행동도 취하지만, 이는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뉴스를 봄으로서 정치 상황을 보거나 과거의 민주국가 지도층들을 생각하면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욕망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욕구 중 권력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서로 걸은 욕구를 가지고 부딪힌다. 이 과정에서 욕구들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과거 이승만 때와 같이 반대파를 없애버리려 하기도 한다. 아마 플라톤은 이 상황을 비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자유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는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현대에 성공적으로 성장하였다. 플라톤이 비판한 나라의 형태는 과두정치, 즉 재물을 중시하는 경향의 정치이다. 아마 이를 현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자본주의와 대결을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개인의 과도한 행동의 자유가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지만,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듯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욕망이 합리적으로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호 발전, 즉 공동체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어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현대의 정치관을 생각하면 관점이 일치하는 점들도 있지만 다른 생각들도 존재한다. 이 다른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는 플라톤의 생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를 성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